

第 15 課

장마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.

【学習事項】 假定形 -(으)면 <ば>, -(으)면서 <ながら>, -이/가 되다 <になる>, -(으)/ㄴ까 <(し)ようか>



• 내일 비가 오면 시험은 중지 될까요?

비가 와도 시험은 할거예요.

• 장마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.

저는 장마 때가 되면 옛일이 자주 생각나요.

• 여름이 되면 해수욕장에 가요?

물론이에요, 저는 한 여름이 되면 바닷가에 자주 가요.

• 서울에서 인천까지 한 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?

한 시간 정도 (라) 면 충분합니다.

• 식사하면서 이야기할까요?

네, 좋아요.



1. 假定文 - (으) 면 <ば、だったら>

用言の語幹が、① パッチムで終わっているときは 으면 を用い、② 母音で終わっているときは 면 を用いる。

① 돈이 없으면 못 간다.

② 비가 오면 안 간다.

이 정도 먹으면 충분하다.

하면 됩니다.

2. 假定文 - (이) 라면 <であれば、だったら>

体言+이다 (である), -이/가 아니다 (ではない) を假定文にする場合は、- (이) 라면 の形が多く用いられている。

① 친동생이라면 좋겠어요.

② 커피라면 제가 먹겠어요.

등산이라면 나도 가겠어요.

낚시가 아니라면 그만두겠어요.

3. 体言+이/가 되다 <になる>

体言の末音が、① パッチムで終わっているときは 이 되다 を用い、② 母音で終わっているときは 가 되다 を用いる。